

SF영화 속 가상세계 표상과 윤리학

토론문

최영희(서울과기대)

수잔 헤이워드(영화사전, 한나래)의 분류에 따르면, SF영화의 서사는 대략 우주의 탐색, 외계인의 침공, 테크놀로지로 구현된 미래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F영화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속성은 대체로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 사회에 대한 구현으로 수렴됩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속성을 통해서 SF영화가 도달하고자 하는 종착점을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그 전망을 통한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이라고 본다면, 이현경 선생님의 논문은 SF영화 속 가상 세계의 지형과 그 안에 담긴 윤리적 태도를 짚어 봄으로써 결국 인간을 규정하는 요소와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현경 선생님의 논의는 SF영화라는 고전적인 개념에서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넘어 영화 자체가 가지는 매체의 존재론적 가치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불완전한 현실과 일종의 절대적 실재 세계를 넘나들고자 하는 오래된 철학적 화두를 고민해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가상세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세계를 지칭”한다고 쓰시고 계시지만, ‘가상세계’ 자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가상현실영화”와의 변별을 통한 우회적인 접근으로 뜻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SF영화, 가상현실영화, 가상세계영화가 어떻게 변별되는 것인지 정교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1번과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목차에서 구분하신 추상적, 실리적, 대안적 표상은 어떤 기준으로 나눈 것이며, 그래서 각각의 표상들이 어떤 변별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개의 표상에 대한 언급은 서론에서만 간략히 언급될 뿐, 각 본론에서는 작품 분석에 치중하고 계시는 데다가 아직 미완의 논의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분 기준과 작품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령, 추상적 표상과 대안적 표상은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까닭에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구분 기준으로 보자면 이에 해당하는 영화 작품 수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작품을 선별하신 기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대안적 표상으로서의 가상 세계' 부분을 읽다 보면 마치 작품 내 인물들이 진입한 (미래의) 가상세계로 인해 현재 우리 삶을 성찰하고 비판하는 것은 물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기대감마저 갖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SF영화의 속성이 과학기술과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공포(예를 든다면, 영화 <그녀>의 경우 포스트휴먼이 인간을 버리고 더 나은 세계를 찾아 떠남으로써 인간의 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공포감)도 불러온다는 측면에서 인간, 원본, 진실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하네요.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상세계영화(혹은 SF영화)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